

문예응모 수상작품

신인 당선작품(시 부문 장원)

해

이 재형

어두운, / 바다를 짚고 일어선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 첫째 날이라

사랑도, 미움도 / 설움도, 아픔도
닿아지고 엮어져 / 퇴색해 버린 희망까지도

나의 딱딱한 하루를 밝혀주었던 그대
돌아가는가

바닥에 남은 피끼기
사소한 진개까지도 가슴에 쓸어안아
생각의 두께를 더하여 / 노을로 드리우더니

그대, 말이 없구나 / 오늘 하루의 소멸한 희망만큼
내일을 꿈꾸리라 / 밤 어두워,
보이지 않는 만큼의 크기로 / 꿈 품으리라

역겹을 돌고 도는 / 물레방아의 역사
비우고 채우는 물길 따라 / 오르고 내리며
영원을 살아가리라 / 그대와, 나

연을 날리며

이 재형

나의 유년은 / 속된 세상 등지고
깊이 숨어든 속리산 자락 / 깎아지른 절벽아래서
푸른 하늘 향해 높이 높이
날아오르던 이카로스의 날개였다

여기, 오늘, 나는 / 한 날의 무게에 치우쳐
한쪽으로 기우뚱대다 / 곤두박질 천길 아래 낭떠러지
내리꽂히거나 / 약삭빠르게 흔들리며
간신히 버티는 나날이다

바람을 잘 타야 살아남는다고들 한다
잡은 끈이 든든해야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한다
연줄을 풀고 감는 알레처럼 / 팽팽히 밀고 당기며
바람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고들 한다

미로를 뚫고 수직의 하늘을 / 높이높이 오르는 것도 좋지만
추락하지 않고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한다

나의 유년은, / 절벽아래서 연을 날며
바람타고 높은 하늘을 비상하는
이카로스의 꿈이었다.

바람이 불어온다

이 은경

바람이 불어온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에도

세상을 향해 빗 장 지른
내 가슴 속에도
스스름 문고리 풀리는 소리

숨 가빠지고
통탄거리는 맥박 붉은 피 돌더니

나, 그 때 나,
골짜기에 마른 뼈로 누워있던 나,
살아서 일어선다

겨우내 죽은 듯 었드렸던 / 앞 산 언덕
초록머리 부비며 잠 깬다
살아서 일어선다

바람맞으며 걷는다
이슬 젖은 아침바람 안고
날아오르는 / 봄 새소리

살아남아서 / 아픈 소리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이 은경

오지 않는 누군가를
기다려 보셨나요.

오래 오래, / 그림고 그리워서
혼자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폭풍우 내리고
천둥번개 지나간 가슴 짝
긴긴밤 그 어두운 빈자리
아름다움의 무늬로 새겼답니다

벽조목 露木
천둥번개 스쳐간 가슴 짝
붉은 꽃무늬로 새겼답니다

산등성이 뒤 돌아서서
하늘 우러러 긴 숨 토해내는
노을 짙은 석양

한 생을 기다려온 / 그리운 사람

오늘은 오실까요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 기다릴래요.

까맣게 속 타버린 / 벽조목

당 선 소 감

‘바람 앞에 마주서서’



신인 당선작품(시 부문 장원)

1957년 7월 25일
충북 보은 출생
부천시청 팀장
허균문학상 시 부문 대상수상
한, 일 국제 예술문학상 시 부문 대상수상
연락처: 010-9808-1478

이재형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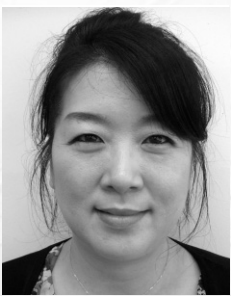
정신을 놓지 않으려 입술 깨문다. 칼바람에 눌지 않으려
휘청대며 서 있다. 누군가의 아늑한 품에 안기고 싶은 때,
흔들리다 아원 등 기대고 싶을 때, 언제나 혼자인 나, 차라
리 바람에 온 몸 맡기고 칼바람 끌려안고 언 가슴 부비며,
겨울 삼동 긴긴 밤을 바람과 살 섞으며 한 몸이 된다. 바
람 앞에 꺾이지 않는 늘 푸른 소나무처럼, 오래 오래 살아
남으려 흔들린다.
새가 바람이 무서워 바람을 피한다면, 그 새는 하늘을

날 수 없다. 연이, 바람이 무서우면 하늘을 날아올라 수 없
다. 비행기가 바람이 두려워 바람을 피한다면 땅을 기어가
는 자동차이지 비행기가 아니다. 새와 연과 비행기의 공통
점은 바람에 맞서야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점이다. 산과 들
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피어나는 들꽃과 아늑한 비밀하우스
속에서 피어난 꽃이 무엇이 다른가? 양계장 속에서 사람의
손길에 보호받으며, 먹을 것 잡잘 것을 걱정 없이 살고 있
는 닭과, 낭떠러지 벼랑 끝에 가시를 물어다가 집짓고, 비
바람 눈비 맞으며 살아가는 독수리와 무엇이 다른가? 살
아있는 ‘야성과 생명력’의 있고 없음의 차이다. 삶의 ‘의
미와 가치’의 있고 없음의 차이다. 비바람 안 맞는 비밀하
우스 속의 화초나 닭은 살아있으나 산 생명이 아니다. 그
속에는 본질적인 삶의 의미나 가치, 생명력이 이미 사라지
고, 박제된 거짓 신기루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10
여년을 내가 ‘바람 앞에 마주서서’ 견달함을 주신 박영남 교
수님과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주신 저지스티임 사
장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1년 8월 성주산 아래서
이 재형

당 선 소 감

‘나를 찾아길 떠나는 기나긴 여로’



신인 당선작품(시 부문 대상)

1964년 5월 8일생
건국대학교 통합논술아카데미
문예창작 아카데미
해외선교사 아카데미
한국어 아카데미 수료
연락처: 010-4002-5140

이은경 시인

내가 어느 날 부턴가 위태로운 발돋움을 시작했을 때,
마치 작두 날 위에서 살풀이춤을 추며 천도 제를 올리는
무녀의 모습이었지, 이승의 나로부터 멀리 떠나보내는 몸
짓, 수십 년을 한곳, 땅에 뿌리박고 산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모든 항해를 마치고 한곳에 돌아와, 정박하고 닻을
내린다는 것, 언젠가 다시 떠날 채비를 하다는 것이겠지.
지나온 길 돌아켜 보면, 나에게서 길 떠나기 그리고, 떠났
던 길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기,,, 나는 굳이 나의 지나온
길이 나를 찾는 순례자의 길이기를 간절히 소망 했다.

일상에 찌들어 흐를 흐를 무너져 내리는, 나의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날마다 뽀송뽀송한 어린이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새 사람, 나를 찾아 떠나는 기나긴 여로, 나는 시
와 문학을 통해 ‘나의 잃어버린 정체성 Identity’ 찾ki였다.

내가 가장 아프고 힘들 때 수년 동안은 문학을 통해 나
아갈 길을 열어 보여주시던 박영남 교수님과 저지스 티임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며, 내 곁에 아직 살아 계
신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 나의 아버지, 내 마음의 기둥
같은 나의 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1년 8월 삼복에, 강남에서
이 은경

심 사 평



박영남 교수

박영남 교수
건국대학교 문예창작아카데미 담임교수,
시인, 문학평론가
저지스티임즈 상임이사
GMC 세계선교사 협회 총재
연락처 : 010-9257-3844

‘세상에서 나와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나의 시는 시공창에서 태어난다. 시공창에 파이프를 박고 썩고 곰삭은 시공창 물 길
어 울려 물 갈아 주고 밥 먹이고 정을 쏟아 기르며, 때를 기다리다보면, 가끔은 더러
울 만한 놈들이 하나씩 건져 올라온다. 명심해야 될 것은, 언제나 시공창은 시공창이라
는 것, 오줌 똥, 눈물 콧물 범벅이 된, 흐르고 흐르다 막다른 궁지에 몰린 것들 그 중
심, 자궁 속에 갇숙이, 뿌리박은 연 대궁에서 길어 올린 수많은 주검의 혼 불이 맑은
이슬로 맺히어 한 뿔기 연꽃으로 피워내는 나의 이마시린 아침이다. 나의 시는,,,

이재형 시인은 10여년 이상을, 이 은경 시인은 삼사년을 나와 함께 문학적인 탐미의
고락을 같이했다. 이재형 시인의 삶과 문학은 ‘바람 앞에 마주서기’다. 여기, 오늘, 나는/
한 날의 무게에 치우쳐/ 한쪽으로 기우뚱대다/ 곤두박질 천길 아래 낭떠러지/ 내리꽂히

기나.,/ 나의 유년은/ 절벽아래서 연을 날며/ 바람타고 높은 하늘을 비상하는/ 이카로
스의 꿈이었다. 이 은경 시인의 삶과 문학도 바람 속에 살아남아서 청보리처럼 아프고
푸르게 다시 일어서는 삶이다. 바람이 불어온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에도/ 세상을
향해 빗 장 지른/새 가슴 속에도,,초록머리 부비며 잠 깬다/ 살아서 일어선다,,,/살아남
아서/ 아픈 소리
새롭게 자기를 찾아 길을 떠나는, 이재형 시인과 이은경시인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
드린다.

2011년 8월 복사 골에서
박 영남

제자교회 폭언, 폭력으로 20여명 부상당해

제자교회(정삼지목사)사태가 교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되면서 이번 일에 대한 후폭풍이 커질 전망이다.

제자교회 성도들은 폭력난입에 대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7일 있었던 공동의 회를 해방하기 위해 동원된 용역으로 보이는 사람들로 성도 20여명이 부상을 당했고, 정신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분토했다.

「odntv」에 의하면 제자교회측은“이번 사태는 분명 용역으로 보이는 인원을 동원한 사전에 계획된 폭력난입사태이며, 기독교에서 가장 성스런 예배를 방해하고 해방했다”면서“우발적이기 보다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였으며, 대표적인 인물 장00, 심00, 김00 등이 모두 출동해서 가스충, 가스통, 카메라 등을 동원하여 일사 분란하게 움직이며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어“제자교회 교인들이 이들을 맨몸으로 막고 버티면서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를 무사히 마쳤다”면서“폭력난입을 보면서 정삼지목사님에 대한 선교원금 유용사건보다 교회와 재정을 마비시켜 교회를 점령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일부 방송의 편파보도와 경찰의 늦장대처 및 수사방관으로 더 많은 불상사를 가져왔다”면서“제자교회의 문제를 넘어 이는 반기독교의 싸움이다”고 설명



제자교회 폭력사태 기자회견

“일부 성도들의 얼굴에 가스충과 소화기를 분사하고, 무차별 폭력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부끄러운 이 죄를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했다. 특히“폭력진입으로 인해 앞으로 각종 고발사건과 민사, 형사 재판에도 많은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면서“반대파의 각종 유언비어와 확인되지 않은 자료유출을 통해 교회와 한국교회의 명예를 실추하고 선교 사업을 막는 등 단순히 한 교회의 일이 아닌 한국 교회의 전체 일로

알고 모든 성도들이 더욱 섬세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여성도는“건장한 남자 두 명이 내 손을 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쳤다”면서“당시 치마를 입고 있는 저를 교묘하게 밟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경찰이 이러한 장면을 보고 있

으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면서“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더 이상 경찰을 믿을 수 없다”고 전했다. 제자교회 측은“이러한 사태가 있을 것으로 알고 미리 경찰서에 보호를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경찰의 보호 받지 못했고, 현장에서 수없이 전화를 걸어 보호를 요청했다”면서“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반드시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7일 공동의회 폭력난입사태에서는 제자교회 반대측에서 용역으로 보이는 건장한 청년들이 십여명이 넘게 동원됐고, 제자교회 성도들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무차별 폭력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성도도 있었다.

특히 가스충과 소화기를 직접 제자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여 이에 대한 고소가 진행될 예정이며, 교회당 유리문을 부수고 나서 소화기 등을 발사하는 장면들이 모두 동영상으로 담겨져 확인됐다.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받은 신자라면 이래서는 안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함에도 왜 이렇게 막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롬 1:21)

의 가르침을 재삼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제는 목사의 자격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회개한 자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용서의 원리를 악용하여, 사악한 범죄자도 쉽게 목사가 될 수 있다면, 사기 칠 목적으로 목사로 위장하려는 악랄한 자들의 범죄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또한 범죄자나 목사나 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최악은 항상 그들 가까이 있게 되어 또 다른 부끄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사법기관에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처리해야 하며, 속여 취한 돈은 철저히 회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것은 한국 교계가 나서서 피해 받은 이들에게 보전해 주어야 한다. 또한 자칭 기독교 지도자라며 이 시기 행각에 동참한 사람들, 피해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국 재산상의 피해와 돈으로 환산 불가한 기독교 진리에 피해를 입힌 지도자들은 모든 교계 활동을 중단해야 하며, 한국교회는 이에 대하여 단죄해야 한다.

「논평」

전과26범 ‘목사’ 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쳐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최근 강보영이란 자가 ‘한국사회복지금융’ (일명: 기독교 은행)을 만든다고 하면서, 23억 8,000만원의 금융사기극을 벌였다 하여 3일 검찰에 구속기소된 사건은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같은 사기는 일반 사회인들이 벌여도 사회 ‘공공의 적’으로 지탄을 받는데, 어찌 기독교 목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인단 말인가? 참으로 부끄럽고 통탄스러운 일이다.

일찍이 한국교회언론회는 강보영의 행태를 보면서, 금융기관 설립 상식과 신앙 원리에도 어긋나 문제가 될 것을 짐작하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고, 그들에게 일부 동조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도 조심할 것을 당부하여, 2010년 11월 1일 장충체육관에서 행한 설립대회에서는 ‘기

독교’라는 이름이 빠지고 있다.

사회보편 일상에서도 벗어난 이 같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기독교의 진리가 의심받게 되며, 교회에 욕이 돌아가는 이런 일은 심히 큰 죄악이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숨 다 할 각으로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으로 살려서 사람들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긴 것이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자기희생과 헌신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전과가 26범이면서 목사라는 것도 그렇거니와, 그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믿도록 하여 수 백 명의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는데 일조한 광대노릇, 혹은 바람

잡이를 한, 소위 기독교 지도자라는 이들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 물질과 명예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함께 자정운동을 펼쳐야 한다.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한기총의 금관선거 문제로 한국교회의 체면이 추락할 대로 추락한 현실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하여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그냥 넘어간다면 범죄에 방조자가 되고 말 것이다.

거룩함과 명예심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목회자들은 “공중에 새들도 깃들일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건마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청빈(淸貧)을 목회자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목회자의 영혼은 아찔했살처럼 맑아야 한다”는 어거스틴

나홀로소송시민연대

나홀로소송시민연대는,

- 1, 저소득층과 소외 계층에 대한 법률구조업무,
- 2, 과다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개인파산.개인회생.민형사소송.행정가사 등 사건 일체를 상담지원협조,
- 3, 회원 조직을 각 시군별로 확대하여 소외 계층과 저소득층들에게 법률적인 혜택을 지원,

본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8-4 동궁빌딩 301호,302호
본부회장 : 김영권

지부 : 대전광역시 중구대흥동 508-1대지빌딩 6층
대전 · 충남지부장 : 서영웅

연락처

중앙본부 : 전화 02-521-8819, 02-595-0027
FAX 02-521-7362

대전·충남 : 전화 042-253-7336,7337
지부FAX 042-253-7338

「각각」

예비 된 그릇

세상의 곳곳을 돌아보면 특이한 것들을 보고 감탄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자연 환경 뿐만이 아니라 사람 사는 모습에서도 새롭고 독특한 모습들에 감명을 받곤 한다. 리마는 페루의 수도이다. 몇 해 전에 그곳을 방문했을 때 처음 깜짝 놀란 것은 꼬맹이 차 티코 때문이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그 차가 맞는가를 몇 번이나 확인해 보았다. 왜냐하면 시내를 돌아다니는 공용택시의 대부분이 티코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알아보니 안내자는 택시의 80%, 많았을 때는 거의 90%를 소화할 정도로 티코가 택시세상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서슴없이 말한다. 물론 필자는 티코에 대한 홍보사도 아니고 그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다만 한국산 차가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고 있고 굴러다니는 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그 작은 소형차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지역 대부분의 택시는 독일의 폭스바겐(Volkswagen)에서 생산하는 비틀(Beetle, 일명 딱정벌레)차였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독일 차에 대한 부러움도 대단하고 일부 부유층에서나 타고 다니며 폼 잡는 것인데 말이다.

아닌게아니라 우리 동네의 앞집 아저씨도 그 딱정벌레차를 사서 얼마나 폼 잡고 다니는지 약간은 도를 넘을 정도다.

그런데 리마에 티코가 들어옴으로써 놀라움게도 폭스바겐을 단숨에 몰아내고 장악해 버린 것이다. 더욱이 재미있는 것은 <기를 댄새만 말아도 가는 차>라고 광고를 해서 과대광고라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다 한다.

그래서 그곳에 굴러다니는 모든 차를 가지고 주행 시험을 했는데 과연 티코의 주행거리가 워낙 많이 나와서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었고 그때부터는 경쟁차가 없이 단독 질주하게 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요즘도 다른 차보다는 더 받는데 왜 요금을 더 받느냐고 질책을 하면 “이게 무슨 참니까? 티코 아님



정기환 박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학장, 시몬번인 기독교술원 이사장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학술원장, 세게원주민선교회 회장
본지 CJN방송 상임이사, 부천 전원중앙교회 담임목사

니까?”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주가를 올린다하니...

한국에서는 이제는 보기도 힘들고 버림받는 듯 하면서 장난감 취급받는 것이 어느 나라에서는 최고의 대접을 받는 것을 보니 자부심도 자부심이지만 무언가 또 다른 생각에 잠기게 하는 면들이 있다.

가치성을 인정해 주는 곳이 있고, 또 그에 맞게 쓰임 받는 면들이 있을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이 연상되었다.

예수님은 모퉁이들이면서도 버림을 받으셨다. 그것도 가장 존경해야할 유대인들의 중심에서 말이다. 그러나 주님은 역시 모퉁이 톨의 역할을 해 내신 것처럼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가끔은 버린 자처럼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리고 어디에선가는 정확하게 쓰임 받을 것을 소망하며 달려가야겠다.

현 세대가 어렵다 하지만 그 소망을 붙잡고 달음박질하다 보면 글로벌 시대를 사는 우리 예전 반드시 크고 멋지게 쓰임 받는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위해 쓰임 받을 예비 된 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